**객체지향 과제를 하면서 느낀 점.**

먼저 시간 배분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.

객체지향은 한번에 몰아서 해도 되는 것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성실성이 필요한 것 같다.

두 번째로 C++을 복습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.

원하는 구조의 클래스와 코드를 짜려면 C++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좀 더 자유롭게 다룰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다. 이번 과제는 이것 저것 시도를 해보려다가 결국 빨간줄 없애기에 급급한 모습밖에 없었던 것 같다.